



강수정, 5년 만에 방송 복귀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강수정(사진)이 5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강수정은 5일 첫 녹화를 앞둔 MBN 코미디 배틀 프로그램 '코미디 청백전-사이다' MC를 맡는다.

중국, 한류스타 비자 발급 거부...한류 ‘빨간불’

긴급점검 | 사드 여파 한중 관계 악화...연예계 파장

드라마 하차에 출연 제의도 끊겨 촬영 마친 작품 무기연기 소문도

중국여권에서 활약하는 한류스타가 중국측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대중 관계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여서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중국을 무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

근 한 한류스타가 중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관계 악화와 관련한 질문에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 한류스타는 2014년부터 중국 활동에 주력하며 현지 영화, 드라마, 웹 드라마 등에서 활약해 왔다. 차세대 한류스타로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보다 중국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그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을 활동 무대로 두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례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 여성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외국인 출입금지” 조치로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남성그룹의 한 멤버는 중국드라마의 주인공에 캐스팅됐다 하차·당하기도 했다.

이미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타들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 남성스타가 출연 중인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8회까지 방송을 마쳤지만 방영이 중단됐다. 이 스타의 소속사 대표는 익명을 요구하며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 출연제 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활동 중이거나 이를 완료하고 편성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의 처지

도 마찬가지다. 비는 드라마 ‘팔월미앙’, 박민영은 ‘시간의 도시’, 유인나는 ‘인현왕후의 남자 시즌2’ 촬영에 한창이다. 이종석과 구혜선은 각각 ‘비취연인’과 ‘전기대형’의 촬영을 마쳤지만, 방송사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드라마를 중국에 선보인 한 제작사 관계자는 “이미 다 찍어놓은 작품의 방송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동시방송을 노리는 사전제작 드라마의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현안과는 아직은 상관이 없어 보인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면서 현지 방송담당 정책부서인 국가신문 출판광전총국은 이듬해 1월부터 해외

영상물 사전심의제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KBS 2TV ‘화랑:더 비기닝’과 SBS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사임당, 빛의 일기’ 등은 이미 사전심의를 통과해 동시 방송에는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우유쿠를 통해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를 동시방송하고 있는 제작사 삼화네트웍스의 박태영 기획제작본부장은 하지만 “중국 동시방송을 위해 심의를 받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이전과 같은 기간 안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계에 떠도는 ‘사드 괴담’ “中 지방정부·기업 알아서 제재” 소문만 무성...‘협한’ 확산 경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속에서 시나연예, 빈과일보 등 중국어권 매체들이 연일 ‘한국 연예인에 대한 활동 제재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8월 초(한국 연예인들에 대한)전면 출연금지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현지 방송가에서 떠돌고 있다고 국내 연예인먼트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는 모두 중국 한류가 심상치 않은 기류로 흐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문제는 단순한 우려나 비관적인 전망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실체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류스타에 대한 중국 측의 최근 비자 발급 거부, 한 여성가수의 중국 방송사 출입금지 등 기류는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그러나 사드와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의 한 방송사 출입을 제지당한 가수 측 관계자는 “과거에도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출입제한이 있긴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이유, 윤아 등은 7월30~

31일 예정된 투어를 문제없이 소화했다. 지창욱이 주연한 드라마도 후난 위성TV가 1일 8회까지 방송됐다. 비 역시 상하이에서 드라마 ‘팔월미앙’ 촬영에 한창이고, ‘함부로 애틋하게’ 중국 프로모션을 계획 중인 김우빈과 수지도 6일 예정대로 출국한다.

영화계에서 ‘중국통’으로 통하는 한 영화제작자는 2일 “한국드라마의 인기 저하 추세와 맞물린 상황”이라며 “영화에도 별 영향이 없다. 중국 영화는 고속성장 중인데, 그 성장세만큼 인력이 없다. 한국 인력과 콘텐츠 역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한중합작 영화 역시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 에이전시 아이엠컴퍼니 배경렬 대표도 “소문만 무성하다. (한류 제재에 대한)중국 정부 당국의 공문이나 공식입장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안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출장을 다녀온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중국 중앙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과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것 같진 않

다”면서도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알아서 눈치를 본다. 한류 수출이 암초에 부딪힌 징후는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교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중국 한류 에이전트는 “지금의 분위기가 협한 정서로 확산된다면, 한류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는 “한중관계가 더욱 우호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홍보협력장은 “중국에서 여러 규제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최근의 사례가 갑자기 심해졌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의 (사드)상황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국내 대중문화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겸 기자 gyummy@donga.com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워’ 2일 오후 소녀시대 유리가 서울 삼청동에서 열린 한 명품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미소 짓고 있다. 유리는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뉴질랜드’에 출연 중이다.

양세형 ‘무도’ 합류, 팬심에 달렸다

〈무한도전〉

미국 촬영도 합류 사실상 준고정 양세형 측 “기다린다” 팬심 촉각

개그맨 양세형에게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합류는 행복한 고민이다. 양세형은 ‘무한도전’에 게스트로 출연할 때마다 팬들로부터 고정출연을 요청받았다. 특히 불만장어로 프로그램을 떠나있던 정형돈이 7월 29일 최종 하차를 발표하면서 양세형을 새 멤버로 영입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무한도전’ 멤버들도 양세형 합류를 반기고 있다. 유재석은 7월30일 방

송에서 “양세형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식 멤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송통 퇴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준하는 종합편성채널 채널 A ‘개밥 주는 남자’에 출연해 양세형을 고정 멤버로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양세형을 새 멤버로 영입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양세형과 다른 출연자들과의 호흡은 이미 방송을 통해 증명됐지만, 대다수 팬들의 동의가 동반돼야 한다. ‘무한도전’은 ‘무모한 도전’에서 이름을 바꿔 10년 이상 방송하고 있는 MBC를 대

표하는 간판 예능이다. 팬들의 ‘의견’이 어느 프로그램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양세형도 이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다. 양세형 측은 “‘무한도전’에 새 멤버로 합류하는 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프로그램의 인기가 워낙 높고 팬덤이 강해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세형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일단 예정된 ‘무한도전’ 일정을 소화한다. 양세형은 2일 진행된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 녹화로 인해, 전날 미국편 촬영을 위해 떠난 멤버들과 동행하지 못했다. 뒤늦게 합류해 4일간 촬영에 참여하고 6일 귀국할 예정이다.

백슬미 기자



김원겸의 토크타임

멀리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은 달을 수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된 삶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기도 한다.

다양한 매력의 ‘별=스타’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가요계는 ‘원투’ 스타가 사라진 지 꽤 오래다. 아이돌 그룹 위주로 팬덤이 형성되고 이들이 한류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가요계는 솔로가수보다는 그룹을 육성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아이돌 그룹의

이효리가 그리운 요즘 가요계

팬덤은 전 세계인을 끌어들이지만 국내 대중의 폭넓은 호응을 얻는 스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이효리는 한때 뜨거운 신드롬을 일으켰던 솔로 스타다. 하루 빨리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스타 중 하나다. 가수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효리는 2014년 SBS ‘매직아이’ MC로 잠시 방송 활동을 한 뒤 지금까지 휴식기를 갖고 있다. 벌써 2년이나 모습을 보기 어려워 그를 그

리워하는 마음이 크다. 때문에 이효리는 제주도의 플리마켓에 등장하거나,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어도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얻는다.

이효리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 때문이다. 그동안 아미비, 채연, 손담비, 현아 등 이효리의 자리를 넘보는 여자 솔로 스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효리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갖지는 못했다. 이효리는 2003년 솔로로 전

향해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요즘 아이돌 그룹처럼 기계처럼 짜여진 춤은 아니었지만 자신감 넘치는 무대는 단숨에 남녀노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순히 ‘섹시함’만을 부각했다면 이효리의 스타성은 팬덤에 갇혔을지도 모른다. 이효리는 KBS 2TV ‘해피투게더’ 등에서 특유의 털털한 모습으로 솔직한 입담을 과시하며 무대와는 전혀 다른 반전의 매력을 선사했다.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무대에서 는 전혀 달라지는 모습에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었다. CF만으로도 ‘이효리의 하루’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광고

시장을 섭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여전히 자연을 사랑하며 사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반려동물에 관한 철학에 박수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잘 훈련받은 아이돌처럼 외국어, 연기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효리가 보여주는 여백이 더 인간적이었기에 그의 컴백을 바랄 터. 그래서 팬들이 완성하고 더불어 그려갈 이야기가 있는 이효리가 그리운 요즘 가요계에 올래 여름은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 내년 여름엔 꼭 돌아오시길.

엔터테인먼트 부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법원, 이진욱 무고 혐의 여성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진욱(사진)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일 오후 4시30분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7월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진욱은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성주 ‘슈퍼스타K 2016’ MC 확정...8년째



방송인 김성주(사진)가 9월22일 첫 방송하는 엠넷 ‘슈퍼스타K 2016’ MC를 맡아 8년 연속 시청자를 찾아간다. 2009년 ‘슈퍼스타K’ 시즌1부터 진행을 맡은 김성주는 매 시즌 매끄럽고 안정감 있는 진행은 물론, 긴장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올해도 김성주는 ‘슈퍼스타K’의 단독 MC로 활약한다. 제작진은 “김성주는 ‘슈퍼스타K’의 매력을 가장 잘 이해하는 MC인 만큼, 내공을 발휘해 긴장감 있고 에너지 넘치는 진행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O.U. 7인조 유닛 음원 발표 앞서 티저 공개

I.O.U.가 9월 7인조 유닛의 첫 음원을 발표한다. 앞서 I.O.U.는 2일 SNS를 통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티저 이미지(사진)를 공개하며 컴백 소식을 알렸다. 이번 티저 이미지는 금발, 붉은 입술, 화이트 원피스로 스타일을 갖춘 7명의 유닛 멤버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소녀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몽환적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과격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어 팬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빅마우스

●“기대에 못 미치고, 밝고 명랑한 인물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든다.”(연기자 김우빈) 1일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에 남긴 글에서, 자신이 주연한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가 최근 시청률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인공으로서 느낀 강한 책임감을 토로하며.

●“싸이, 마돈나 들어올리다 허리 나갈 뻔했다.”(방송인 박명수) 2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2012년 마돈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해 ‘강남스타일’ 무대를 함께 했던 싸이의 뒷이야기를 전하며.

●“지성파도 대담한 모험을 해야 살아남지.”(누리꾼 t opa****) MBC 드라마극 박성수 국장이 수목드라마 ‘더블유’에 대해 “대본만 보고 편성했다”고 방송사 홍보팀과 인터뷰한 기사 댓글에서, ‘더블유’는 현실과 웹툰 세계를 오가는 독특한 설정.

음악 랭킹

7월 25일~7월 31일, 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Why So Lonely	원더걸스
2	Day Day (Ft. 박재범)	비와이
3	너 그리고 나	여자친구
4	Forever	비와이
5	CHEER UP	TWICE
6	I Like That	씨스타
7	냉면에 상어 (Ft. 블랙넛)	슈퍼비
8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9	Shut Up (Ft. 유희열)	언니쓰
10	호랑나비 (Ft. Gill, 리듬파워)	보이비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